



특히 이날 현대증권이 올 하반기 목표지수를 최고 1,980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한데다 코모닝신한증권도 목표지수를 1,900선으로 상향조정, 증권사들의 공식적인 목표치도 잇따라 지수 2,000선을 가시권에 두면서 투자자들이 한층 고무되는 분위기이며, 이날 시가총액도 9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지수 2,000선 가시권=현대증권은 이날 투자전략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주시시장이 저금리에 근거한 밸류에이션 확장이 지속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적정 코스피지수를 1,980으로 제시하고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현대증권 산업분석부장은 "요즘 지수상승은 저금리에 따른 주식가격의 재평가로 봐야 하며, 이를 감안할 때 올 하반기 적정 코스피지수는 1,980선 정도로 추정된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중에 지수 2,000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코모닝신한증권도 증시에 근원적인 변

28일 코스피지수가 13.35포인트(0.81%) 오른 1,657.91로 사상최고가 행진을 계속하는 등 증시가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시장 주변에서는 올해 중에 '꿈의 지수'라고 하는 코스피지수 2,000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증권사들 목표지수 잇따라 상향 시가총액도 900조원 시대 개막

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목표지수를 기존의 1,720에서 1,900으로 상향조정했다.

박효진 연구위원은 "2005년에 경험한 18년간의 박스권 돌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는 변화를 올해 안에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황창중 투자전략팀장은 "현재처럼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2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정규 마감 기준 유가증권시장(814조5천120억원)과 코스닥시장(92조200억원)을 합한 전체 시가총액은 906조5천320억원이었다.

국내 증시는 1999년 12월22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400조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있다가 증시 호황이 본격화된 2005년 2월18일에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9월20일에 600조원, 12월12일에는 7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한 이후 작년에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다가 올 들어 신기록 행진을 재개했다.

지난 달 4일 8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세계 증시 호황에 힘입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 급기야 시가총액 900조원을 넘어선 것.

작년 국내총생산(GDP) 847조8천64억원과 대비할 때도 증시 시가총액이 107%에 달해 GDP를 7%나 초과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미 FTA 'ASG' 과일류는 사과 하나 뿐 전남 과일농가 피해 우려

미국이 갈베를 포함한 최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농산물 세이프 가드' (ASG) 품목중 과일류는 사과 단 한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일류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배를 비롯한 전남 과일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미FTA ASG 적용대상 농산물 30개 품목중 과일류는 사과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ASG는 단기간에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농업부문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 올 주식 평가액 정몽준 ↑ 이근희 ↓

정몽구회장 2위로 하락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들어 10대 그룹 주요 주주들의 주식 평가액이 크게 불어난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의원의 평가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삼성전자의 주가부진으로 10대 그룹 주요 주주 가운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2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 등을 제외한 자산총액 상위 10개 그룹 주요 주주들의 보유주식 평가금액은 18일 현재 9조8천98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27.47% 불었다.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인 정몽준 의원의 주식 평가액이 현대중공업 주가 급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두배 이상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 820만주에 대한 평가액이 작년말 1조345억원에서 2조3천111억원으로 123.41% 늘어나며 형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을 제치고 10대 그룹 주요 주주 중 주식 부자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이근희 회장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주식 평가액이 7.38% 줄었다.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1

10대 그룹 주요주주 보유주식 평가금액 (단위:백만원,%)

그룹	주요주주	2006년말	2007.5.18	증감률
삼성	이근희	1,775,092	1,644,031	-7.38
현대차	정몽준	2,082,976	2,309,264	10.86
S K	최태원	141,255	212,764	50.62
L G	구본무	544,615	729,914	34.02
롯데	신격호	551,436	517,894	-6.08
G S	허삼수	660,589	840,354	27.21
금호	박삼구	70,026	91,550	30.74
한진	조양호	267,359	367,689	37.53
현대중	정몽준	1,034,461	2,311,116	123.10
한화	김승연	637,032	873,384	37.10
합계		7,764,841	9,897,959	27.47

## 중소 대출 급증 곳곳서 경고음

### 대출 부실화 가능성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통화당국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이 중소기업대출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나홀주제인 시중은행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증가에 대해 "생산현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순기능이 강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통화당국은 "부동산시장이건 중소기업이건 부동산 총량 자체가 급증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28일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가계대출증가액은 3조8천억원에 불과했고 특히 작년 전체 대출증가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은 1조2천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무려 2조2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5월 들어서도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15일까지 중소기업 대출이 2조3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등 대출살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금리 상승세는 계속되



'원산지 표시 관리 홍보차량' 시연회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 농림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산지 표시 관리 홍보차량' 시연회에서 박 장관 등이 수입 및 국산 농산물 비교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 경마·경정·경륜·카지노... 사행산업 매출 급속 늘어

지난해까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등 사행산업이 올해 들어 매출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오락사업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침체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의 유흥성 증가, 경기 회복조동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복권, 카지노, 스크린 마권 등 기타 오락산업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6% 늘어나 2005년 3.4분기(1.8%) 이후 6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전년 동기비 증가율로는 2004년 1·4분기의 26.9% 이후 3년래 최고 수준이다.

경마, 경륜, 경정 등을 포함하는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의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 스카치블루 "색깔로 진품 확인하세요"

### DNA인크로 라벨 제작 용액 묻히면 색깔 변해

롯데칠성음은 28일 제품위조를 막기 위해 색깔 변화로 진품을 확인할 수 있는 DNA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DNA 시스템은 DNA인크로 만든 라벨에 용액을 묻히면 라벨의 색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다시 물을 묻히면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어서 즉석에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6천440억원으로 평가액 순위는 작년말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2조3천93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0.86% 늘어나는데 그치며 동생 정 의원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주식 보유금액이 37.10% 증가한 8천734억원, 허삼수 GS그룹 회장이 27.21% 증가한 8천404억원으로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자리를 맞바꿨다.

## 최고-능력 인정 해주는 상사 최악-불성실·못미더운 상사

### 직장인 458명 설문

직장인들이 꼽은 최고, 또는 최악의 상사는 어떤 유형일까?

28일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에 따르면 최근 자사 회원인 직장인 458명을 상대로 '선호하는 상사와 싫어하는 상사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상사 유형으로 응답자의 50.2%가 '업무능력을 인정해주는 상사'를 꼽았다.

'칭찬과 격려를 잘 해주는 상사'를 좋아한다는 응답이 35.0%로 뒤를 이었고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상사'(10.3%), '꼭 필요한 회의만 하는 상사'(4.4%) 등의 대담도 있었다.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상사' 유형으로는 '불성실하고 못 미더운 상사'(26.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배울 것

## "주택재개발사업 자료 반드시 공개해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자료에 대한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도시·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간 시행규칙상의 공람 규정이 모호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때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다.

시행규칙(22조)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등의 공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들이 자료 공람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간에 분쟁이 적지 않았다.

고충위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